

평창에 서울대 의료센터 설립 추진

평창군-서울대병원, 지역 공공의료 발전 '맞손'



1, 2 평창군-서울대병원 지역 공공의료 발전 협약식.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왼쪽)과 한왕기 평창군수가 평창 군민을 위한 역내 의료센터 설립 등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시지역보다 의료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해 지역 의료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공공의료 질적 향상과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군은 교통인프라가 확충된 지역에 서울대 의료센터 건립이 추진되면 주민의 의료 접근성이 높아져 농촌 지역 주민들의 진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혜택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평창군이 지역-대학-병원 간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찾고 싶고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대병원·서울대 평창 캠퍼스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2

강원 평창군과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7일 서울대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왕기 평창군수,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이광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역내 의료센터 건립 등 군민을 위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병원 설립 위치, 규모, 운영 방법, 추진 일정 등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서울대 평창 그린바이오 캠퍼스와 연계해 스마트 헬스케어·마이크로바이옴 등 미래 융합 의료 분야 선도를 위한 시산학(市産學) 클러스터 구축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는 평창군과 주민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농산어촌(고령화율 30.2%)으로,

맛있는 해피 700 평창

고랭지 청정지역인 해피700 평창의 맛있고 건강한 특산물입니다



평화도시



문화관광도시



활력있는 경제도시